



QR코드를 통해  
요셉의원과 만나세요

# 요셉의원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필리핀요셉의원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지 2023년 10월 제 **130-1**호

<http://www.josephclinic.org> | [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http://web.facebook.com/josephclinic1987)

발행인 유경춘 편집 요셉의원 편집부 발행처 요셉나눔재단법인

(우) 073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전화 : (02)2634-1760 FAX : (02)2677-5839 E-mail : info@josephclinic.org

## ‘적극적 돌봄 위해 방문 서비스 강화’ 2023 요셉나눔재단 워크숍 통해 신규 사업 논의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With the poor)’라는 모토 아래, 이들을 위한 진료와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문 서비스를 연계한 전문 방문 간호와 방문 검진 실시, 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 확보 등 여러 분야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사진 아래는 본원 의료 봉사자가 방문 진료하는 모습.

지난 10월 14일 재단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 요셉나눔재단 워크숍’을 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진료와 지원활동을 더욱 적극적이며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사업실과 사회사업실 등 전 부서 임직원 32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방문 서비스를 연계한 전문 방문 간호와 방문 검진 실시 ▲자원봉사자 확보 ▲쪽방촌 환자들의 약 복용 실태 파악과 복약 지도 ▲선우 경



식 선생 기념사업 점검 등 주요 현안 및 내년도 사업 계획에 대한 제안과 토의가 이뤄졌다.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는 각 부서 발표에 앞서, “교구장님의 사목교서에 따른 지침 마련을 겸해서 임직원 워크숍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대의원회의를 뜻하는 시노드(synod)가 ‘여정을 함께한다’는 의미를 지니듯, 요셉나눔재단 역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30-1호  
주요  
소식



2023 요셉나눔재단 워크숍

1



봉사자 코너

6



병원 소식

8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14



국회 소식

16





고영초 원장은 본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자는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일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낮진료 의료봉사자 확충과 상급 병원과의 협조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런 시노드 정신 아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할 때 ‘가난한 이를 위해서(for the poor)’가 아니라 ‘가난한 이와 함께(with the poor)’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난한 환자를 나와 동등하거나 나아가 예수님으로 보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고, 비록 거친 환자라 하더라도 말이나 행동에서 항상 겸손하고 공손한 자세를 취하자”고 당부했다.

고영초 원장은 본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우리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환자는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일 수 있다”고 말하고, “방문 진료 등 진료 대상 확대를 위해 특히 낮 진료 의료봉사자 확충에 힘을 쏟는 한편,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 개선, 상급 병원과의 협조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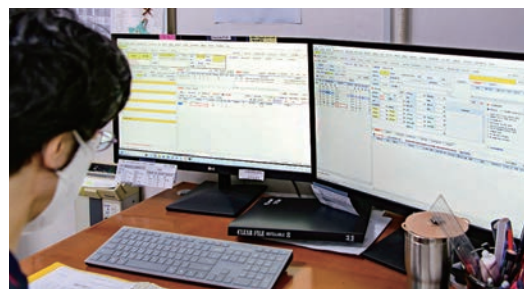
### 전문 방문간호에 복약실태도 조사

본원은 올 들어 특히 환자 방문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했다. 지난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700여 가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3가 돈의동 쪽방촌 지역에 한의 봉사자가 본원 직원과 함께 방문 진료에 나서 173회를 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사회사업실에서는 매주 목요일 영등포 쪽방촌 지역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는 한편, 5월부터는 가정 간호팀을 구성해 병원에 오지 못하는 고령 환자를 찾아가 간단한 검진 기구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민광한 사회

사업실장 수녀는 “앞으로 사회복지사 전담 방문팀과 길거리 노숙인 방문팀 등 쪽방촌 진료를 위한 방문 팀워크를 구축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더 세분화하고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환자 방문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간호팀이 전문 방문 간호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주 간호팀장은 “사회사업팀과 협력해 주 3회 전문 방문간호팀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이라고 설명하고, “봉사의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진료와 함께 상처 치료와 검사물 채취, 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고, 방문 후에는 본원 전자 의무기록부(EMR)와 처방전달 시스템(OCs)에 기록해 연계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본원은 거동 불편한 고령자 등 병원에 못 오는 환자들에 대한 방문 검진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방문 진료 결과는 본원 의료정보시스템에 기록해 관리하게 된다. 사진 위는 일반 혈액검사 장면, 아래는 의료정보시스템 화면.





본원을 찾는 환자들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에 관절, 비뇨기,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 복용하는 약물 종류도 그만큼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약을 빠뜨리지 않고 제때 복용하도록 하는 복용 지도도 중요하다.

황보 신이 약제팀장  
수녀는 “의료진이 환자  
를 방문할 때 약사 봉사

자가 함께 방문해 복약 지도를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며, 무엇보다 쪽방 주민들의 약 복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5명 이내의 환자를 선정해 중복 처방 여부, 약 복용 상태, 부작용 유무 등을 확인하고, 보고서 작성 뒤 의료진과 협의해 진료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쪽방 주민들이 약을 잘 보관하고 순서대로 제때 복용할 수 있도록 약 보관함의 제작, 배포도 고려 중이다.

## 대상자 선정해 방문 검진 실시

새로 추가되는 방문 서비스에서 관심을 끄는 분야는 환자 방문 건강검진. 본원에서는 현재 환자가 처음 방문하면 혈압, 몸무게, X선 검사와 소변 혈당 간기능 신장기능 콜레스테롤 염증 간염과 HIV 통풍 등 20여 종목의 기본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첫 진료 후 1년 이상이 지난 환자는 다시 같은 검사를 실시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김재근 의료사업실장은 “지병이 있는 환자들은 통상 30가지 정도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 혈액검사보다 종목 수가 많다”며, “꼭방촌 거주자 상당 수는 국민건강보험 검진 대상이라도 검사를 잘 받지 않는 분들이 많아 본원 자체적으로 환자별 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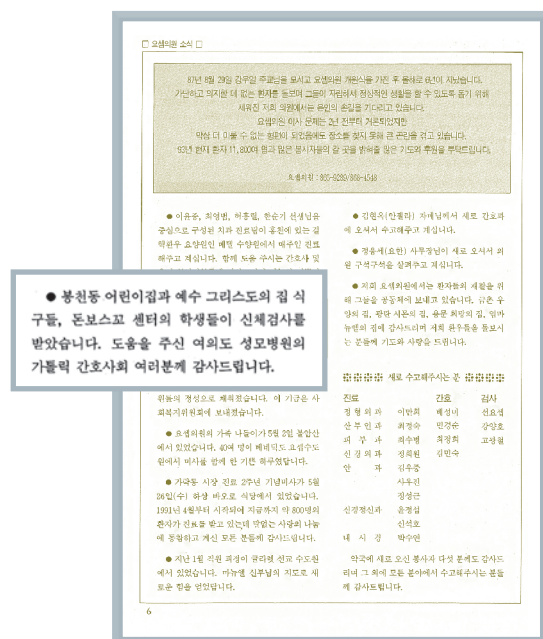
본원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기본 검사 외에 앞으로는 병원에 잘 오지 않거나 못오는 쪽방촌의 ‘내성적인 고령 환자’나 장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 검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가난한 환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나와 동등하거나, 나아가 예수님으로 보는 마음 가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근 실장은 “본원 방문 간호 혹은 방문 진료팀과 연계해 대상자들에게는 초진 기본검사 외에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기능검사 등을 선택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검사 결과에 따라 병원의 판단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방문 건강검진에 대해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청소년에서 노년층까지 대상을 확대, 세분화하고 의료시설 접근이 어려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은 선우 경식 초대원장 때  
도 실시했었다. 1992년도와 1993년도 본원 소식지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돈보스코센터 학생들, 봉천동 아



1993년 7월 본원 소식지에 게재한 취약계층에 대한 신체검사 소식



이번 워크숍에는 요셉나눔재단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해 '적극적 돌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 네 번째는 고영초 병원장.

기방 유아, 보라매 청소년회관 직원 등에 대해 여의도 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의 도움을 받아 신체검사를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 선우 원장 재임 시에는 필요한 대상에게 거의 매년 건강검진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전문 봉사자 확보 시급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원봉사자 확보와 전문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각 부서 상황에 따라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봉사자는 본원 설립 초기부터 환자, 후원자와 함께 본원을 지탱하는 3대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



본원 약국의 장기 봉사자인 권희문 약사가 약제실에서 약을 조제하고 있다.

사 인력이 부족한 편이고, 일부 부서는 담당자가 휴가를 내고 싶어도 대신 일을 처리할 봉사자를 구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규 사업이 발표되면서, 이 사업 수행을 지원할 전문 자원봉사자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자원봉사자를 일반 봉사자와 전문 봉사자로 나뉘볼 때 청소와 물품 관리, 장보기 등을 할 수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도 필요하고, 간호 쪽에서 상담 전문 간호와 방문 전문 간호 봉사자, 약사 봉사자, 임상병리 저녁 봉사자, 낮진료방사선사, 전산 업무 봉사자, 동영상 편집 인력, 기념사업회 운영 경험자 등 여러 전문 봉사자들의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전문 자원봉사자 확보를 위해 본원 홈페이지와 서울주보 등에 분야별로 상세한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요셉의원의 오늘이



본원 의료봉사진은 '어려운' 환자들을 보살펴야 하는 만큼, 투철한 봉사정신과 애정을 가진 장기 봉사자가 많은 편이다.

해 왔다. 코로나 사태로 자원봉사 활동이 한 동안 거의 중단됐다 재개된 요즘에는 자원 봉사의 등 진료팀 85명, 치과팀 57명, 약제팀 37명, 임상병리팀 44명 등 모두 389명의 봉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원봉

있게 된 것은 각 분야 전문 봉사자분들이 내 일처럼 헌신해주셨기 때문”이라며, “봉사자 여러분이 능력과 열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꼭방춘 향기

# 환자의 신산한 삶을 드러낸 ‘까만 콩’

적당한 휴식과 청결이 있는 삶이 주어져 더 이상 예의 그 덩어리가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애잔한 마음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층의 여러 도움들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내 하찮은 발걸음 한 번도 그것에 보탬이 될까, 하여 요셉의원에 계속 가고 있나 보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 ‘완두콩 공주’라는 이야기가 있다. 침대에 요와 솜을 스무 장씩이나 깔았는데도 그 아래 놓인 완두콩 한 알 때문에 잠자리가 불편해 고생한 공주의 이야기이다. 덕분에 진짜 공주임이 증명되어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

어린 나이의 내게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침대는 고사하고 요 깔고 형제들끼리 눕다 보면 저만치 맨바닥에 굴러다니면서도 잘만 자던 내게 예민한 공주는 판 세상 사람 같았다.

한동안 완두콩만 보면 공주와 무수리를 가르는 무언가라도 되는 양 느껴지더니, 후에는 양증맞고 맛나기만 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콩이 되었다.

\*

그때 이후로 요셉의원에서 정말 인상적인 ‘콩’을 다시 만났다. 한 남자 환자분이 진료 중 발 쪽의 문제를 호소하길래 일단 한번 보자고 했을 때였다. 신발과 양말을 차례로 벗자 그분의 오른쪽 발 엄지와 검지 발가락 사이에 작고 까만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순간 콩이 왜 저기 있나 싶어 고개를 숙여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그것은 손으로 누르면 납작해질 질감을 가진 시큼한 냄새를 풍기는 이물질 덩어리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당혹감을 감추고 서로 애써 발에만 집중하는 척하는



서지영

본원 내과 봉사의 · 김선구 정형외과의원 근무



사이 그것은 그의 발이 양말과 신발 속으로 차례로 다시 들어가는 틈을 타 진료실 바닥 어딘가로 굴러떨어졌을 것이다.

\*

아기의 주먹 쥔 손가락 사이 젖내 나는 하얀 침 뭍치도 아닌, 여름날 겨드랑이 사이 땀내 나는 가느다란 회색 땀자국도 아닌, 사람의 몸에 때와 먼지와 땀이 뭉쳐져 그렇게 동그랗고 까만 덩어리가 생겨날 수 있다니. 내가 향한 곳에서는 볼 수 없던 판 세상

일이었다. 얼마만큼이나 발을 씻지 못하고, 양말을 갈아신지 못한 것인가. 얼마나 오래도록 신을 벗을 수 없는 공간과 시간들을 헤매었던 것일까. 내 것과는 다르다는 것은 그런 것인가. 까만 덩어리는 그의 가난하고 신산한 삶을 한 점으로 응축해 보여주고 있었다.

\*

한동안 콩자반을 먹거나 밥 속에 섞인 콩을 입에 넣을라치면 그 까만 덩어리가 연상되어 곤혹스러웠다. 지금은 그의 발에 적당한 휴식과 청결이 있는 삶이 주어져 더 이상 예의 그 덩어리가 자라지 않기를 바라는 애잔한 마음만 남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사회 각층의 여러 도움들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내 하찮은 발걸음 한 번도 그것에 보탬이 될까, 하여 요셉의원에 계속 가고 있나 보다. +



## 봉사자 코너

## 약대 학장 역임하고 약국 봉사하는 하현주 봉사자

“만성질환자 많은 요셉의원에선 복약 지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하현주 봉사자(오른쪽)가 환자에게 약을 건네주며 복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요셉의원에 봉사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려니 쑥스럽네요. 말로 한 약속을 앞으로 잘 지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화여대 약대 학장을 역임하고 올해 2월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하현주 봉사자는 지난 4월부터 자원해서 본원 약국에 봉사를 나오고 있다. 하 봉사자는 “전화로 요셉의원 약국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약 조제는 서툴다고 했더니 배우면서 하면 된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선배 약사 약국에서 며칠간 조제법을 익히고 나왔다”고 말했다.

당연히 약사 자격증이 있으나 약 조제와 복약 지도를 하는 임상 약사를 하지 않고, 약리학자로서 연구와 교육에만 몰두하다 보니 조제가 서툴다는 것. 경륜으로 볼 때 다양한 봉사를 할 수 있을 법한데 굳이 냄새나는 쪽방촌 자선병원에서 봉사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 공부를 하거나 살아오면서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저의 큰 스승이신 친정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사회와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범을 보이신 영향도 컸습니다.”

그는 “5, 6년 전부터 정년 후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 재임 중에 먼저 성가복지병원에 연락했더니 코로나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고, 퇴임하고 나서 요셉의원 문을 두드렸다”고 덧붙였다.

### “방문 약사 제도 도입도 필요”

하 봉사자는 요셉의원에 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약 조제와 복약 지도 외에 몇 가지를 꼽았다. 먼저 눈길이 가는 일은 방문 약사 제도 도입으로, 황보 신이 약제팀장 수녀의 조언에 따른 아이디어다. 현재 본원은 쪽방촌 방문 간호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 방문팀에 약사도 참여해 복약 지도를 하면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요셉의원 환자들은 만성질환자가 많아서 정확한 용량을 제때 복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약 복용을 소홀히 하다가 다시 아파서 병원에 오면 용량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러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본원 환자들의 처방과 복약의 특성에 관한 파악.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몇 달간 살펴보니 이곳 환자에 대한 처방과 약을 복용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돼 여건이 되는 대로 조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특성 파악은 환자 진료와 복약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원에 봉사 오는 약대생들에 대한 지도에도 하 봉사자가 중요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 봉사자는 조제 봉사를 하는 틈틈이 여러 달에 걸쳐 본원에서 쓰는 300여 종의약품 정보를 새롭게 업데이트해 처방과 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본원 약품정보 매뉴얼 개선 작업

본원에서는 하 봉사자가 봉사를 나올 즈음 예전부터 사용하던 약품 정보 매뉴얼을 대폭 개선하려던 터여서, 이 일을 ‘자연스럽게’ 그가 맡게 됐다.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급에서는 수천 종의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처방이나 조제, 복약 지도에 활용하고 있어요. 요셉의원에서 쓰는 약은 약 300종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약품 정보와 분류 체계를 큰 폭으로 업데이트해서 10월 말쯤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처방하시거나 약국에서 조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 약대 졸업 후 미국 미네소타대로 유학한 그는 연세대 의대를 거쳐 2003년 모교에 정착했다. 재직 기간 동안 활발한 연구를 통해 당뇨병성 콩팥 질환 및 조직 섬유화 질환의 발생기전에 대한 우수 연구를 통해 국내 연구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100여 편의 SCI급 논문을 저술하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약학부 정회원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는, 학위 논문 등을 미처 끝마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정년 이후인 최근에도 논문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와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약대 건립 지원에도 큰 관심을 쏟는 중이다. 하 봉사자는 “약학은 국민 보건 향상과 제약산업 발전이란 두 축을 지니고 있어, 약대 건립과 약학

교육은 특히 개발도상국의 사회 경제 발전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제도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 열심히 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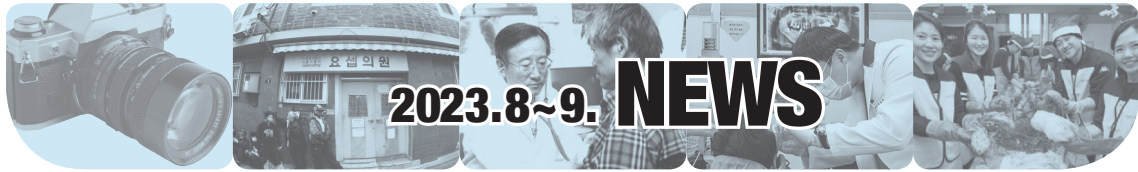
퇴임 후에도 관심을 쏟는 일이 이렇듯 적지 않지만,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본원에 봉사를 나오며 제도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요셉의원에 열심히 공을 들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덧붙여진 일 중의 하나는 취미로 민화를 그리는 일. 화가인 여동생에게 찾아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기 지도를 받다 보니 “발전하는 재미도 있는데 그동안 못 나눴던 자매 간의 정도 한층 도타워졌다”고 귀띔했다.



자리를 함께한 약제팀. 왼쪽부터 유종희 약제팀원, 하현주 봉사자, 황보 신이 약제팀장 수녀, 소정우 봉사자.

90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봉사 등 여러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남편의 지원이 필요할 터. 5년 전 서울대 공대 교수직을 정년 퇴임한 남편은 가톨릭 신자는 아니지만 아내의 일에 늘 지지를 보내고, 필요할 때는 식사도 혼자 챙겨 든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일하고 있는 딸과, 결혼해서 분가한, 기아자동차에 재직하는 아들 등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년 퇴직을 한 노년층 사이에서 ‘정년 뒤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 봉사자는 이런 수요에 맞춰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원봉사를 비롯해 경험과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과 평균수명은 점차 늘어나는데, 이분들이 전공을 살려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본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통계가 있다”며, “사람들의 생각은 변화하는데 그에 맞춰 사회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23 요셉나눔재단 워크숍 실시

요셉나눔재단(이 사장 유경춘 대표)은 10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23년도 요셉나눔재단법인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에는 재단 산하 요셉

의원과 필리핀요셉의원 및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임직원 32명이 참석해 2023년도 사업실적과 새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돌봄을 위한 방문 서비스 강화와 자원봉사자 확충 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은 선우 경식 초대원장의 정신과 발자취를 담은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고영초 원장의 '요셉의원이 나아갈 방향'과 홍근표 재단 사무총장 신부의 '요셉나눔재단법인 운영 방향' 제시에 이어, 각 부서 24개

팀의 발표와 총평 및 파견미사로 진행됐다. <관련 기사 1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서 24개팀이 2023년도 사업실적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아래는 워크숍 종료 후 파견미사에서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의 강론 모습.



## 이재청 내과봉사의 9년 봉사 마감



지난 2015년 8월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천안 자택과 영등포 본원을 오가며 내과 무료 진료를 나오던 이재청 선생(77)이 10월 10일자로 봉사를 마감했다.

본원 선우 경식 초대원장과 가톨릭의대 동문인 이 봉사의는 2015년 운영하던 병원을 폐업한 뒤 봉사할 곳을 알아보다 본원과 인연을 맺게 됐다.

이후 매주 화요일 오전 8시45분에 집을 나와 천안역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KTX로 서울역에 와서 다시 전철로 갈아타고 영등포까



## 노숙인을 위한 목요식사나눔 재개



본원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급식행사인 ‘목요식사나눔’을 11월 23일(목)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 식사 나눔은 인근 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이 쉬는 목요일을 택해 노숙인들에게 주로 육류 위주의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목요나눔에는 통상 150명 내외의 인원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주 음식 조리를 위한 주방 봉사자와 급식 봉사자, 설거지 봉사자 등 20~30명의 봉사자들이 필요해 본원의 인근 성당 봉사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다. 봉사를 원하는 분은 본원 자원봉사팀(대표전화 02-2634-1760)에 연락하면 된다. +

## 심장 초음파와 복부 초음파 검사 강화

본원 의료팀에서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실시했던 초음파 진단 검사를 확대해 매주 심장 초음파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복부 초음파 검사는 주로 간과 췌장, 비장, 신장, 담낭, 담도, 대



장 및 위장 등의 내부 장기를 시각화해 종양이나 낭종, 염증, 혈전 및 장기의 비정상적 크기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심장 초음파는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박동시에 얼마나 많은 피가 내보내지는지를 감지해 심장 판막의 결함이나 선천적 결손, 심장 구조의 이상, 심낭염, 대동맥 박리 등을 탐지하는데 활용된다. 고영초 병원장은 “췌방촌 환자 중에는 술을 많이 마시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많아 소화기 질환이 자주 발견되고, 꾸준한 운동을 하지 못해 심장도 안 좋은 편”이라며, “초음파 전문 봉사의 두 분을 섭외해 가능한 한 11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청 봉사의는 9년 간의 진료 봉사를 마감하며 “앞으로도 요셉의원이 열과 성을 다해 하느님 일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 오는 ‘멀고 먼 봉사의 여정’을 걸었다. 이웃을 위한 봉사에 남다른 열의를 지녔던 이 봉사의는 천안 지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도 했고, 한 때 필리핀 요셉의원 봉사의를 자원한 적도 있었다.

10월 10일 미사 말미에 간단한 환송회 겸 감사장 수여식에서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는 “지난 9년 동안 먼 곳에서 수고를 마다 않고 봉사를 오신 이 선생님께 모든 직원 및 봉사자들과 함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 봉사자는 “제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원에 함께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요셉의원이 열과 성을 다해 하느님의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요셉의원과 환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고 말했다. ! +



## 심재훈 봉사의, 자전 소설 출간 언론 소개



요셉의원 앞에서 직원, 봉사자들과 함께.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는 선우 경식 초대원장, 네 번째가 심재훈 봉사의. 사진 왼쪽 아래는 이번에 출간한 책 표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동안 해마다 미국에서 서울 영등포 요셉의원까지 날아와 3개월 간 무료 의료봉사를 했던 재미동포 의사 심재훈 선생(88·가정의학, 한의학)이 지난 7월 8일 서울 송파구 강남중앙교회에서 자전 소설 <나는 혼자가 아이다>(가디언)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소설은 작가 김미조 씨가 파란만장하고 극적인 삶을 산 심 선생의 구술을 받아 펴냈다. 작가는 심 선생이 부모의 이혼으로 친인척을 전전하며 외롭게 살다 6.25 당시 미군 하우스보이를 하며 돈을 모아 경북대의대에 진학하고,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에 정착하기까지의 삶을 현실감있게 그려냈다.

<월간조선> 9월호에 심선생 인터뷰(재미동포 의사 심재훈의 기막힌 인생기)가 실렸다.(<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E&nNewsNumb=202309100055>) +

## 쪽방촌에 추석 선물 전달

재단 홍근표 사무총장 신부와 고영초 병원장을 비롯한 본원 직원 30여 명은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부근 쪽방촌 주민 300여 세대에 구운 달걀 20개들이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본원 사회사업실에서는 이



추석 선물세트 배포에 앞서 요셉의원 직원들이 함께 기도를 올리고 있다.



본원 이완자 원목 수녀와 직원이 쪽방 주민과 함께 포즈를 취했다.

에 앞서 쪽방촌 주민들의 실거주 상태를 파악한 뒤 전 직원을 6개조로 나눠 각 세대를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건강 상태도 살펴보고 돌봤다. +

## (주)HNM, 본원에 음향장비 교체 후원

본원은 10월 25일 음향 및 영상 장비 개발 전문기업인 (주)에이치엔엠(HNM)(대표 조요환)의 후원으로 3층 경당과 4층 회의실의 앰프와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장비 일체를 모두 교체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장비 노후화로 마이크가 꺼지거나 하울링이 심해 회의 진행이 수시로 중단됐던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에이치엔엠 측 기술자 5명은 이날 본원을 방문해 앰프와 스피커 등 음향장비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회의용 탁자 마이크 6대, 무선 핸드 마이크 1대, 핀 마이크 1대를 제공했다. 본원 음향장비는 그동안 고장이 잦아 이승덕 전산실장이 장비업체를 수소문하다 에이치엔엠의 강영배 관리이사 겸 연구소장을 알게 돼 장비 교체로까지 이어졌다. 강영배 이사는 마침 같은 경기 과천 성당에 다니는 본원 고영초 원장이 성당에서 요셉의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는 인사말을 들었고, 이승덕 실장의 음향장비 교체 문의와도 연결되면서 조요환 대표와 함께 본원을 찾게 됐다.

조 대표와 강이사는 본원의 음향장비 상태와 함께, 진료실과 선우 경식 초대원장 기념전시실, 옷 나눔방 등 원내 곳곳을 둘러봤다. 이때 조요환 대표는 “우리를 대신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는 데 돈 받을 곳이 아니다”라며, 선뜻 “장비 후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비 교체와 시설공사 등 1천만 원 상당의 후원을 한 (주)

에이치엔엠은 오디오/영상 시스템과 화상회의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으로, 부천시의회 등 의회의 전자투표시스템과 관공서의 화상회의 시스템 및 스튜디오 등을 구축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







## 환자스토리

### 우울증으로 일손 놓은 강기대 씨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살다보면 누구나 기쁜 일, 슬픈 일을 겪기 마련이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과 마주할 때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고 마음을 추스리느냐가 삶의 지혜이자 방편이라고 얘기들 한다.

본원을 찾는 환자들 가운데는 어

린 시절부터 시작해 성인이 되어서까지 겪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여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본원에서 진료를 받는 강기대 씨(55)도 그런 이들 중 한 사람이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의고 친조모 밑에서 자란 그는 가족관계에서의 잠재적 상실감이 삶의 여정에서 발목을 잡곤 했다. 할머니 집에서 살 때 초·중학교 때까지는 친삼촌 셋이 모두 직장에 다녀 생활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고교 때 가세가 기울어지며 학교를 중퇴하고 기계 가공 회사에 들어가 쇠를 다듬는 선반 일을 배웠다. 이때 야학에 다니며 고교 3학년 과정을 마쳤다. 군에서 제대한 뒤에도 2년 정도 선반 일을 했으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정신적 방향이 시작됐다.

“저를 키워주시고 아껴주시던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세상에서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고,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 아는 친구들 소개로 이리 저리 일터를 옮겨 다니게 됐어요.”

서울에는 20대 초반에 올라왔다. 파주 근방의 바닥재 패널 가공회사에서 일하며 한 여성을 만나 사귀기도 했으나 3년 만에 헤어지고 말았다. 이에 따른 상실감 때문인지 하던 일도 귀찮아지고 의욕을 잃었다. 그러던 차 선배의 소개로 발을 들여놓은 곳이 강남역 뉴욕제과 부근 로테오거리의 한 유명한 술집. 여기서 그는 웨이터로 일하며 두둑

한 팁으로 큰 수입을 올렸다.

“당시 한달에 150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렸으니 꽤 많은 편이었죠. 그러나 매일 돈이 생기는 줄 알고는 돈 귀한 줄 모르고 술 마시고 노름하며 방탕한 생활 하는데 탕진해버렸어요.”

40대 중반이 가까워지면서 ‘찬란했던’ 유흥가 생활도 막을 내렸다. 나이가 들다 보니 써주는 업소가 없었다. 게다가 다른 일을 하자니 예전에 하던 선반 일도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다. 돈도 없어 결국 발길을 돌린 곳이 영등포 쪽 방촌이었다.

“이곳에 와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8,000원씩 내고 잠을 잘 때도 있었지요. 술 중독은 아니었지만 술 먹고 싶어서 일을 안 나간 적도 있고요. 주인 아줌마가 보더니 술 먹지 말고 무료 급식이라도 얻어먹으라고 달래더군요. 무료 급식소 식판을 받아드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 하는 생각에 고개도 못 들고 밥만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요셉의원에서 식사를 주는 ‘목요나눔’에서도 몇 차례 밥을 먹었다는 그는 쪽방촌을 벗어나자는 생각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던 중 부산진 경찰서에서 자신보다 열살 많은 이복형이 고독사했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며칠 뒤 시신을 화장 처리했다는 통보서를 받고는 갑자기 엄청난 설움이 북받쳤다.

“평생 한두 번밖에 못 본 분이지만 이제 이 세상에 피붙이가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해서 펄펄 울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던 방문 간호사가 삶의 의욕도 없이 술만 먹는 저를 보고 ‘이상한 생각’ 하는 것 아니냐며 자살예방 복지사를 보내더군요.”

2021년 5월쯤 복지사들과 함께 구로동 모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 초조 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한 달에 네 번씩 병원에 다니며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러다 2년 뒤인 지난 7월 의지로 약을 끊어보자는 마음을 먹고 약을 먹지 않자, 그만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하며 울기도 하고, 3주치 약을 한꺼번에 털어넣는 등 자해 시도도 하게 됐다.

“술 먹으면 감정이 북받쳐서 얼굴도 모르는 엄마 생각이

많이 나고, 엄마 있는 사람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자해도 많이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죽고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요.”

일주일을 그렇게 지내던 그는 못 견디고 다시 요셉의원을 찾았다. 본원 정신과 봉사의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많이 해주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다고 했다. 최근 정신적 안정을 많이 찾은 듯 보이는 그는

이제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2021년부터 생활수급비 85만원을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구청에 얘기했습니다. 자살 충동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 병에서도 빨리 벗어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저금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쪽방촌을 탈출한 것처럼, 그가 우울증에서 벗어나 희망과 꿈이 깃든 새 삶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



## 후원의 손길

### 가족 기념행사 때 500만 원씩 기부한 조형식 후원자 가족

####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나눔합니다”

“제가 지난 8월 말 정년 퇴임한 것을 계기로 어려운 분들에게 다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본원에 비정기로 후원을 하고 있는 조형식 후원자(62)는 지난 9월 14일 500만 원을 송금하며, 후원 계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후원자 가족은 가족 중에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본원에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한 이색적인 후원 가족이다. 첫 번째 후원은 지난 2016년 4월 20일, 이날은 외아들 조건영 씨(28)가 군에서 만기 제대한 것을 기념해 아버지 조형식 후원자와 아들 조건영 씨가 함께 본원에 내원해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어 두 번째는 2021년 2월 말로, 아내 이상미 후원자의 초등학교 교직 명예 퇴임을 맞아 부부가 같이 본원을 찾아 같은 액수인 500만 원을 기탁했다.

조 후원자는 “이번에도 언북초등학교 교장을 끝으로 정년 퇴임하면서 아들과 함께 요셉의원을 방문하려 했으나 갑자기 일이 생겨 아들만 보냈다”며, “아들에게도 '좋은 애

기를 해달라’고 전했다.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호주 항공사 지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조건영 씨는 본원 초

대원장 선우 경식 선생 기념전시실을 비롯해 1층에서 4층까지 진료실과 정당, 도서관, 환자들에게 나눠 주는 옷방 등을 두루 살펴본 뒤, “현 직장에서의 근무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부모님 뜻을 따라 봉사와 후원 등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조 후원자 가족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 조형식 후원자는 본원 기부에 대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요셉의원이 하는 일을 언젠가 언론에서 본 것 같고, 또 믿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후원자는 아들을 본원에 보낸 이유에 대해 교육자다운 견해를 전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돈 번다고 힘들게 쫓아다니는데, 자기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국내외의 다양한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런 이웃들과 함께 하고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면 시야가 넓어지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요셉의원 | 후원 및 기증현황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분(2023년 8월~9월)

●Jae minsuk ●VANNER GON(이원서) ●강채은 ●강희원 ●권정희 ●권준이 ●김건우 ●김나현 ●김미숙 ●김보람 ●김서현 ●김성옥 ●김순자 ●김양기 ●김연Fr ●김영진 ●김영훈 ●김영희 ●김익유 ●김종문 ●김준수 ●김지연 ●김춘자 ●김태경 ●김희진 ●나중구 ●도승현 ●도일환 ●도종민 ●사무엘(멕시코인) ●박만희 ●박미정 ●박재현 ●박주영 ●박채령 ●방미란 ●배현녀 ●서원희 ●송명옥 ●송민영 ●송은지 ●송지훈 ●신수현 ●신영미 ●신하은 ●심지은 ●양경숙 ●엄지숙 ●오윤재 ●유민성 ●윤다정 ●윤상표







- 윤지연 ● 윤혜진 ● 이경희 ● 이경희 ● 이귀열 ● 이나현 ● 이동례 ● 이명자
- 이성림 ● 이성애 ● 이소연 ● 이승하 ● 이연희 ● 이영숙 ● 이용우 ● 이윤성
- 이은정 ● 이은희 ● 이자영 ● 이정림 ● 이춘숙 ● 임윤택 ● 임 호 ● 장선영
- 장정조 ● 장진혁 ● 전형철 ● 정근수 ● 정문용 ● 정선문 ● 정선혜 ● 정성자
- 정영신 ● 정영희 ● 조영희 ● 조은숙 ● 조항주 ● 주서현 ● 준형이네
- 진윤솔 ● 차유진 ● 최민서 ● 최성희 ● 최수민 ● 하상희 ● 한도윤 ● 홍세정
- 홍주원

### + 후원금을 처음 보내주신 단체 (2023년 8월~9월)

- 풍성한 교회



### + 주·부식을 보내주신 분 (2023년 8월~9월)



- 가톨릭학원 사제일동 : 과일 2상자 ● 강신걸 · 김선화(피스오브헤븐) : 유기농 롤케익과 쿠키 각각 2상자 ● 김\*희(파주시) : 쌀 20kg ● 김평옥 유스티나 : 단호박 1상자(10kg) ● 대방동성당 유치원 : 과일 3상자, 야채 1상자 ● 목5동성당 : 쌀 40kg ● 바보의나눔 재단 : 쌀 190kg ● 보성고등학교 학생회 회장단 : 생수 240병, 쇠고기죽 340개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배 2상자 ● 신민석 회장(대한결핵협회) : 견과 1상자 ● 아카이브 센터(이연창) : 한과 1상자 ● 영등포4가 우체국장 : 사과 3상자, 배4상자 ● 오산 노틀담 유치원 : 배 3상자, 복숭아 3상자, 포도 6상자, 야채 1자루 ● 이길한 : 한과 1상자 ● 이랜드 복지재단 : 배 1상자 ● 익명 : 쌀 30kg, 두유 6상자 ● 조민경 : 생수 5상자(500mlx20)

### + 의류·신발을 보내주신 분 (2023년 8월~9월)



- 김하\* (구로구) : 옷 1상자 ● 노동윤 : 옷 1상자 ● 목5동성당 : 신발 200켤레, 옷 1상자 ● 보라매 병원 : 남성용 팬티 40장 ● 염수현 안드레아 : 신발 5켤레, 가방 2개, 종이컵 2상자 ● 윤\*경(안산시) : 옷 1상자 ● 장대식 : 옷 1상자 ● 장현석 : 옷 3상자

### + 의료가·의약품을 보내주신 분 (2023년 8월~9월)



- 경인메디컬 : 자누비아 외 2종 ● 바보의 나눔 : 글루비타 외 1종 ● 하나제약 : 노마로크 정 외 20종

### + 집기·소모품을 보내주신 분 (2023년 8월~9월)



- 김\*애(양주시) : 마스크94 1200장 ● 김\*영(영등포구) : 마스크(혼합) 1상자 ● 김\*정(동대문구) : 마스크94 65장 ● 김정웅 : 마스크94 700장 ● 김하\* (구로구) : 잡화 1상자 ● 김하\* (구로구) : 잡화 1상자 ● 백종현 : 손소독제 1상자(20개) ● 이학길(사랑의집 봉사자) : 발 보호대 한 짝 ● 조\*진 글라라(광주광역시) : 마스크94 257장

## 직원 및 봉사자 동정

### + 새로 입사하신 분

- 원목실 : 이완자 수녀(08.21)
- 총무실 : 기획행정팀장 정운식 (09.01)
- 사회사업실 : 정버리 (사회복지사, 09.15)  
김정애 (사회복지사, 11.01)
- 의료사업실 : 간호팀 최현옥(간호사, 11.01)

### + 새로 봉사 나오신 분

- 의 사 : 서병국(이비인후과)  
박경미(한외과)
- 간호사 : 권진숙 서지숙 이승원 최숙경
- 약 사 : 김경희 김형옥 박원희 손은경  
유숙박 이지혜
- 사회사업실 : 강인철 김승찬 박광연  
유안나
- 일반 봉사 : 김정애 손유선

### + 우리 병원에서 나눔한 기관·개인

- 정승혜
- 토마스의 집

### + 요셉의원 월별 환자 진료수

2023년 8월	1,308 명
2023년 9월	1,204 명



개원 이후 총 진료환자 수(2023년 9월 말 현재)

742,079 명

“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필리핀요셉의원 소식

2023.8~9.

김다솔 신부의

필리핀 현지통신

## 급식팀, 무료 급식 사업 재정비



김다솔 원장신부(왼쪽 사진)가 급식자 선정을 위해 가난한 집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본원 설립 때부터 이어오던 무료 급식 사업이 재정비에 들어갔다. 필리핀 요셉의원 급식팀은 그동안 근처 동네 아이들(6세~11세)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무료 급식 운영방식을 3년 만에 새로 점검하

고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할 예정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60명의 아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이 급식 사업은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대상 마을을 바꾸어 진행했었다. 그러

나 코로나 사태 때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같은 장소에서 3년간 급식을 진행해 오며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장소와 대상을 선정하고, 급식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먼저 급식 대상자는 신청서를 받아서 가정방문을 통해 형편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종 대상자 260여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 넓은 시설 개보수 진행

필리핀요셉의원이 개원 10년을 넘어서면서 여러 시설이 낡아 종합적인 시설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우기와 건기가 있는 필



## 복음 묵상

##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인연은 놀랍습니다”

이곳에 한 번 봉사 오셨던 의료진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번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놀라운 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니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기관장이 되어 보니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사무적인 관계로 남아있기 쉬웠습니다. 어느새 주변에 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외롭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실패도 많이 겪었습니다. 배려하고 혜택을 주면 더 요셉의원을 소중히 생각하리라고 기대했던 직원은 월급을 가불하고 잠적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약값을 지원해주었던 이는 더 좋은 곳에서 제안이 오자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나갔습니다.

진심이라고 생각한 이들에게 다른 속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부추기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좋은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보게 되고, 열정이 없었던 이에게서 요셉의원을 향한 헌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자들이 낡은 전기 배선을 점검하고 있다.

리핀에서는 기후 특성상 각종 시설이 빠르게 노후화돼 건물을 비롯한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 이번 시설 점검은 특히 문제가 있었던 전기 배선 시스템 점검과 지붕 개보수, 건물 방수 처리, 차량 점검 등을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전기 계통이 노후화되고 여기에 현지 전기 공급이 불안정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나 해외 의료봉사팀 방문 시에

종종 문제가 됐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전기 공급 용량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외부 출장 진료 장소 확대

본원은 대체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부에서 진료를 진행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외부에 출장 진료를 나가고 있다. 특히 교구 내 사회복지 시설인 선교 본부(mission station)와 교도소를 방문해 내과와 치과 진료를 진행하는 일도 중요한 진료사업의 하나다. 최근에는 교구 카리따스의 요청으로 경찰서 내의 구치소 방문 진료를 시작해 출장 진료가 추가됐다. 재판이나 이감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는 필리핀 사법제도 특성상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가 수개월씩 대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잦으며, 또한 수감 허용 인원을 넘겨서 과밀 수용을 하는 경우도 많다.



필리핀 말라본 구치소에서의 출장 진료 모습. 사진 위는 치과 치료 장면.

이 때문에 구치소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수감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말라본 구치소와 청소년 구치소, 깔로오칸 구치소를 매달 돌아가며 진료하게 된다. +

### + 2023년 8월~9월 신규 후원회원(8명)

- 곽수경 ●김은영 ●이명국 ●김종현 ●최재은
- 박순임 ●한정인 ●김은실

### + 2023년 8월~9월 진료 및 급식 통계

- 진료 998명 ●급식 : 대상자 재정비로 일시 중단

### + 개원 이후 총 진료 및 급식 인원(2023년 9월 현재)

- 진료 94,114명 ●급식 488,393명

### + 필리핀요셉의원 후원 계좌

☎ 070-4688-3412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거나 홈페이지(<http://philjsclinic.org>)를 통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364301-04-150303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우리은행	1005-201-940450	천주교서울대교구 필리핀요셉의원후원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7:10 요셉의원 내 경당  
미사지향 : 고 최영식 마티아 Fr. 및  
필리핀요셉의원 후원자들을 위하여

동시에 새로이 인연을 맺는 이들에게서 힘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 한 번 봉사 오셨던 의료진들이 꾸준히 관심을 보여주시고 여러 번 방문하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놀라운 일로 이끌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관계의 마지막에서야 그 결과를 알게 되었으나 그 과정 안에서는 오로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성찰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이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이 이어지면서 인격적이고 좋은 관계로 이끌어 줄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형태는 어쩌면 정해져 있는 것이겠지만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라는 성찰은 체험 속에서 하느님께서 계시해주신 빛이었습니다. +

김다솔

필리핀요셉의원 원장신부



##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소식

2023.8~9.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국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난 때문에 읽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성경 한 권은 앞날을 비춰주는 빛이고 희망입니다.

###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꽃과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남아메리카 칠레에서 온 성경 지원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 푸엔테 알토 지역에서 현지 인들과 함께 선교하며 살고 있는 최동민 파스칼 신부입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중순에 칠레에 도착하여 6월부터 공식적으로 성 마티아 본당 담당 사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신부님 한 분과 함께 본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목하고 있는 곳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교육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9개 공소가 하나의 본당을 이루고 있는 성 마티아 본당은 공동체가 많다 보니 기본적인 유지비용과 교육비 등이 절실하지만, 마을 자체가 가난하여 재정 자립 자체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성경과 전례, 교리(세례, 견진 등)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각 공소에 전례 예식서도 갖추어져 있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정도 많지 않습니다. 몇몇 가정이 신약성경만 소지하고 있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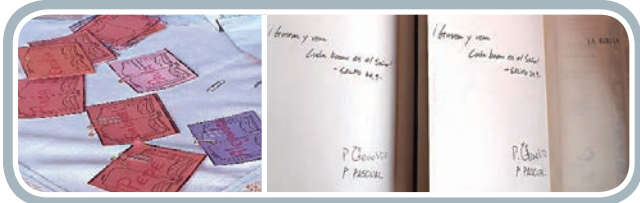
입니다. 신약성경이 신구약성경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권의 비용이 한국 성경 가격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기에 수입이 적은 신자들은 성경책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제 개인 비용이나 본당 예산으로라도 구입해주면 좋겠지만 전체 신자들 수가 많고, 선교회 본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정의 비용 외에는 본당 수입 자체가 거의 없는 곳이어서 그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해보려 고민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후원을 받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이렇게 국성회에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동네 집들이 어둡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큰 글씨 성경이 더욱 필요합니다. 요청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커서 염치가 없습니다. 향후 성경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성경을 구경해보지

칠레 푸엔테 알토지역 성 마티아 본당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모습. 사진 오른쪽은 국성회에서 지원한 성경책들.





성경 공부 수강자 이름표(왼쪽), 시편 성경문구와 두 사제의 서명을 적은 성경 책 안쪽 표지.

못한 교우들이 성경을 만져보고, 각자 집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분배할 예정입니다. 성경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비록 아직까지는 다 다져지지 않은, 돌도 많고 가시도 많은 땅이지만,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고 듣는 시간들을 통해 돌도 걸러내고 가시도 쳐내어, 하느님 말씀이 마음 속 깊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3. 7. 17. 칠레에서 최동민 파스칼 신부 ✚

☞ 2023년 8월 16일 스페인어 큰글씨 성경 200권(10,011,696원/권당 50,058.48원), 일반 성경 100권(4,010,932원/권당 40,109.32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총 14,022,628원)



## “간절히 필요한 책을 얻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적 지원받은 남아공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에서의 감사 편지



강의실에서 전시된 책을 살펴보는 신학생들(왼쪽)과 도서관 모습. 오른쪽 위는 이 학교 총장인 은세보 시운들라(Ncebo Siwundla) 신부.



시간마다 방문하는 신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전시 첫날 아침식사 후, 책이 전시된 강의실에는 이미 2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모여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날 오전에는 거의 모든 신학생이 방문했고, 동급생과 선후배가 같이 의견을 나누며 1인당 1,000렌드(=70,000원)의 서적들을 신중

국성회에서는 남아공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신학생들이 각자 필요한 신앙서적을 소지할 수 있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고, 1차 지원으로서 2023년 8월 15일~17일 동안 신학교 강의실에 책을 전시하였습니다(2차 지원은 2024년 3월 경에 이루어질 예정).

전시 하루 전날, 트럭으로 책 박스를 나르고 가까운 성당에서 16개의 테이블을 빌려와, 신학교 강의실에 책을 분류해 정리했습니다. 전날이라 준비 단계였음에도 쉬는

하게 골랐습니다. 교수 신부님들도 신학생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방문하여 학생들이 책을 고르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신학교 도서관에도 책을 기증했습니다. 신학생들이 학기 중에 필요한 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책 자체가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관장도 자기 생애에 이런 지원은 처음이라며 관대한 나눔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 용산성당 국성회 홍보 미사 안내

일시 : 2023년 11월 4일(토) 18 : 00 특전미사,

11월 5일(일) 06 : 00, 08 : 30, 10 : 00, 11 : 30, 18 : 00 주일미사

장소 : 천주교 용산성당(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15길 37)

교통 : 지하철 경의중앙선/공항철도선 공덕역 10번 출구 맞은편에서  
마포 02 마을버스 승차, 용산성당 정류장에서 하차



기증한 책에 국성회 로고 스탬프를 찍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생(다니엘).



신학교 총장 은세보 시운들라(Ncebo Siwundla) 신부님이 남아공 주교회의에 참석해서 국성회의 활동을 모든 주교님께 보고했습니다. 주교님들은 교

구 신학생들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에 큰 감사를 표하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총장 신부님 또한 신학교에 보내 주신 관대한 나눔에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매월 마지막 토요일 은인들을 위한 미사 때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신학생들 몇몇은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니엘 신학생은 특히 가난한 교구 소속의 신학생이라 교구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전경.

기회가 자신에게는 기도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신학생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며, 감사 사진과 영상을 찍기 위해 의상을 갖춰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무엇보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 그리고 국성회 회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일에는 그분께서 먼저 좋은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풍성히 맺히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2023. 9. 4. 남아공에서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 ✚

☞ 2023년 9월 21일 신학생 109명을 위한 신앙서적(1인당 1,000랜드 지원)과 도서관 비치용 서적 지원금 총 120,120랜드(=8,408,400원/1랜드=70원) 후원하였습니다.

## 성경 보급을 후원하며

### “빵만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삽니다”

가난한 이들은 기본적인 의식주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을 텐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에 더 급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척박한 환경에서 기본적 의식주에 급급해지게 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때부터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는 성경을 후원합니다.

또한 단순히 성경 보급뿐만이 아니라 교육적 부분에도 초점을 맞추어 성경 경시대회와 성경교육 후원, 나아가 문해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지의 신자들 중에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적은 글을 가르쳐 성경을 읽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그 과정에서 문맹을 벗어나 성경 외의 다른 글을 읽고 다른 지식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신자 개인의 정신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 4)고 하셨듯이 빵도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사 후에 듣는 파견말씀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많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국성회 같은 단체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있으니 많은 분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문주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설립자 겸 자문 사제 인터뷰에서(2016. 8. 12.)





## + 국성회 지원 내역(2023년 8월~9월)

- 8/16 칠레 최동민 파스칼 신부(대전교구 소속 성 골롬반 수도회 지원사제)에게 스페인어 성경 300권 지원(큰글씨 성경 200권 (10,011,696원) 일반 성경 100권(4,010,932원) 총 14,022,628원)
- 8/16 차드 도바교구에 은감바이어 성경 5,000권 인쇄비 및 컨테이너 운송비 등 102,134,733원 지원(인쇄비 88,200,000원/컨테이너 운송비 13,840,633원/성경 관세비 16,500원)
- 9/21 남아공 양은오 체사리아 수녀(성바오로딸수도회)에게 성 요한 비안네 신학교 학생들을 위한 신앙서적과 신학교 도서관 도서 120,120랜드(= 8,408,400원/1랜드=70원) 지원

## 국성회 | 후원 현황 및 후원계좌

### + 후원해 주신 분들 - 일반(2023년 8월~9월)

- 고현수 ● 김금재 ● 김덕순 ● 김만길 ● 김명숙 ● 김명희 ● 김범준 ● 김병희 ● 김성권 ● 김영추 ● 김영환 ● 김윤순 ● 김진우 ● 김현경
- 김현숙 ● 나삼균 ● 문경호 ● 민영진 ● 박소향 ● 박언빈 ● 박종대 ● 송미경 ● 송보영 ● 신해경 ● 양영실 ● 오세형 ● 오영신 ● 윤영순
- 윤영찬 ● 윤용식 ● 윤창현 ● 이강득 ● 이미순 ● 이상숙 ● 이상현 ● 이용애 ● 이은행 ● 이장순 ● 이재청 ● 이정석 ● 이정희 ● 이종대
- 이중환 ● 이향희 ● 이현옥 ● 이현창 ● 이혜순 ● 이희인 ● 임한미 ● 장을숙 ● 전대영 ● 정재숙 ● 조하영 ● 조현순 ● 최경재 ● 최두혁
- 최명옥 ● 허금태 ● 허 근 ● 홍성실 ● 홍지원 ● 황세희 ● 황태운 ● 진석일업

### + 후원해 주신 분들 - 사제 및 단체(2023년 8월~9월)

- 김경식 ● 김원호 ● 나종진 ● 박우준 ● 서상범 ● 오창선 ● 유경춘 ● 이계호 ● 이문주 ● 임상무 ● 정순택 ● 조인기 ● 최광희 ● 최명근
- 최정훈 ● 한정화 ● 홍근표 ● 익명희망자

### + 신규 후원회원 - 일반(2023년 8월~9월)

- 김동휘 ● 김미숙 ● 박희자 ● 이명국 ● 정영미

### + 신규 후원회원 - 사제 및 단체(2023년 8월~9월)

- 현재 투병중이신 신현박 아우소니오 신부님의 성함으로 300,000원을 후원받았습니다.

2023년 8월~9월 후원금 내역 : 9,034,000원

## + 국성회 후원 방법

### 1. 지로용지 신청

국성회 사무실(02-2676-9981)에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지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2. 은행 송금

-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송금/모바일 뱅킹 송금/은행창구 송금
- 자동 계좌이체의 경우 신분증, 도장, 통장을 지참하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신 뒤에 국성회 사무실 전화번호(02-2676-9981) 혹은 이메일(overseas-bible@hanmail.net)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801-003937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국민은행	364301-04-106412	국제성경사도직후원회

### 2023년 11월 후원회 미사 알림



일시 : 2023년 11월 14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요셉의원 3층 경당(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 6)

교통 :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6번 출구에서 문래동 쪽 200m

“네 복이 완전해지도록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우는 이들을 버려두지 말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여라.  
병자 방문을 주저하지 마라.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리라.”

| 집회 7, 32-35 |

노숙자와 행려자, 알콜의존증 환자, 외국인근로자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요셉나눔재단법인의 자선 의료기관으로서 여러분의 정성 어린 후원과 봉사에 힘입어 36년 간 국내외의 가난한 이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습니다.

배려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요셉의원 환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목욕서비스

시간 월~금요일 오후 1~3시 남성  
3~5시 여성

장소 1층 목욕실



## 법률상담

상담 예약 문의 전화 070-4688-3413  
(오후 1시~5시 전화 연결 가능)



## 영화상영

시간 매월 셋째 화요일  
오후 1시 30분~4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음악치료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4층 도서관



## 도서관 운영

시간 월, 화, 수, 금요일 오후 1시~5시  
(화요일은 4시까지)



## 폭방 도시락 나눔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장소 거동 불편한 노년층 방문

## ♥ 요셉의원 후원 방법

## 1. 요셉의원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의 '후원 신청' 혹은 '후원 안내' 메뉴의 '후원 신청'을 클릭해 들어간 뒤 왼쪽의 '정기후원(CMS)' 버튼을 누른 다음 후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기존 일반 자동이체 회원 ● CMS 전환 희망자 포함).

## 2. 요셉의원에 전화로 신청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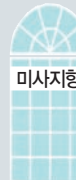
요셉의원 후원관리팀에 전화(070-4688-3416)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원신청을 합니다(녹취를 통한 CMS 자동이체 신청).

## 3. 은행에 신청하기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을 이용하시거나 신분증과 도장,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셔서 아래 은행의 계좌번호로 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하신 후에는 전화(070-4688-3416) 또는 donation@josephclinic.org로 입금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안내

요셉의원 3층 경당에서는  
월~금요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월요일 : 후원자를 위하여

화요일 :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 자원봉사자들을 위하여

금요일 : 세상을 떠난 선우경식 원장과  
후원자, 환자, 봉사자의 영혼을 위하여

+ 봉사자와 환우 분들을 환영합니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우리은행	1005-604-557810	요셉나눔재단법인
기업은행	209-000118-01-010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리은행	172-066521-01-101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국민은행	364-01-0000-97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111-13-04699-8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하나은행	193-890037-13505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우체국	010108-01-011536	요셉나눔재단법인 요셉의원

## “소중한 봉사의 경험과 사연을 소개해 주세요”

“요셉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있었던 감동적인 스토리를 모집합니다.  
의료인, 환자, 보호자, 일반 봉사자 등 요셉의원과 관련된 따뜻한 봉사 경험담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 요셉의원 편집부 E-mail : info@josephclinic.org

